
2025년 하반기
영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5. 6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차 례

I. 실물 경제	1
1. 최근 동향	1
2. 향후 전망	5
II. 금융 시장	9
1. 최근 동향	9
2. 향후 전망	12

< 요약 >

<최근 동향>

- 상반기 중 영국 경제는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나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기업 심리지표가 부진하였고, 노동시장의 유휴여력 확대로 임금 오름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영국 금융시장은 시장금리(10년물 국채)가 재정 우려 등으로 등락하다가 4.5% 내외로 하향 안정되었고, 주가(FTSE100)는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 환율(USD/GBP)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

<향후 전망>

- 하반기 중 영국경제는 재정정책 긴축과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노동시장은 공급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파운드화 강세 영향이 가세하며 내년말 물가목표(2%) 수준에 근접할 전망
 - 성장률은 재정정책 긴축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7년에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유휴 노동력 증가로 상승하며 금년중 중기 NAIRU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소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어 금년말 3%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영국 금융시장은 시장금리(10년 국채)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둔화로 하락하고, 주가(FTSE100)는 교역 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USD/GBP)은 탈달러화 흐름 등으로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
 -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현재 4.25%인 정책금리를 하반기에도 분기마다 한 차례씩(25bp)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은 인도(5.6일), 미국(5.8일), EU(5.19일) 등과 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
 - 2025년 글로벌 공적자금 운용기관 설문 결과, 미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5%p 증가한 16%에 달해, 달러화 기피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I. 실물 경제

1 최근 동향

1 성장

▶ 영국 성장률은 상반기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래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가계 및 기업 심리지표는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 등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기준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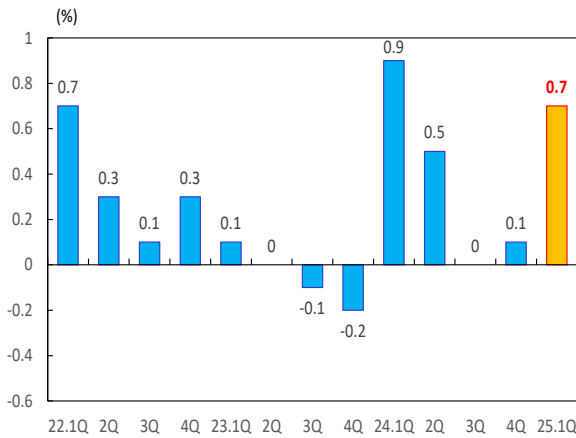
□ GDP 성장률(전기비)은 25.1/4분기 +0.7%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24.3/4분기: 0%, 4/4분기: 0.1%)에서 반등

○ 서비스(+0.7%) 부문이 행정지원서비스 및 도소매 활동 증가로, 제조(+1.1%) 부문*이 운송장비** 및 기계장비 제조활동 증가로 성장한 데 기인

* 제조 부문은 2024.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역성장 지속(24.2/4분기 -0.5%, 3/4분기 -0.3%, 4/4분기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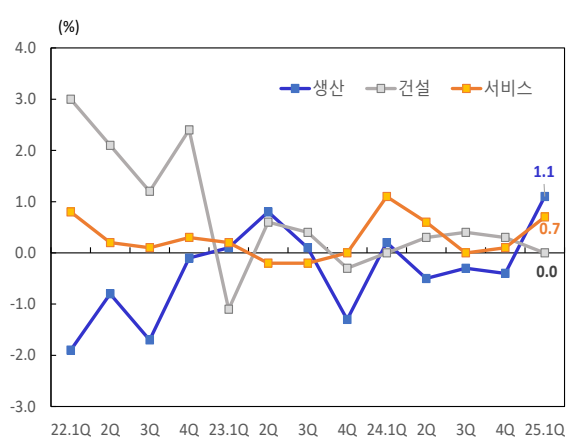
** 운송장비제조업은 금년 1/4분기중 전기대비 +2.7% 성장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5.5%로 낮은 수준. 2024년중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부진,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 재편 과정에서 기존 자동차 일부 모델 생산이 중단되면서 차량생산이 큰 폭 감소한 데 기인(SMMT, 2025.1.30.)

분기별 GDP 성장률¹⁾²⁾



주 : 1) 전분기 대비 2) 계절조정
자료 : ONS

부문별 GDP 성장률¹⁾



주 : 1) 전분기 대비 2) 계절조정
자료 : ONS

○ 월별 GDP를 보면 1월중(0.0%) 제조 및 건설부문 부진이 이어지며 미약한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2~3월(각각 +0.5%, +0.2%)중 서비스 부문 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

— 다만 4월 들어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이 동반 부진하며 큰 폭의 역성장 (-0.3%)을 기록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전 선수출 급증 기저효과에 따른 4월 이후 대미수출 감소, 4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국민보험료 기업부담분(NIC)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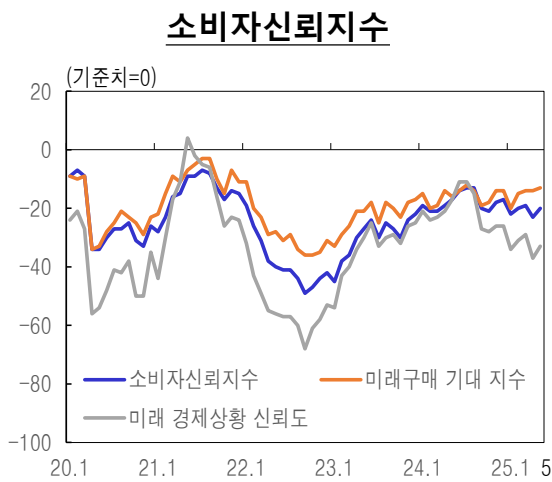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기준치 0)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저조한 모습**을 지속하며 **금년 상반기중에도 기준치 하회**(-20 내외)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물가상승 우려**, 금년 4월 실시한 에너지,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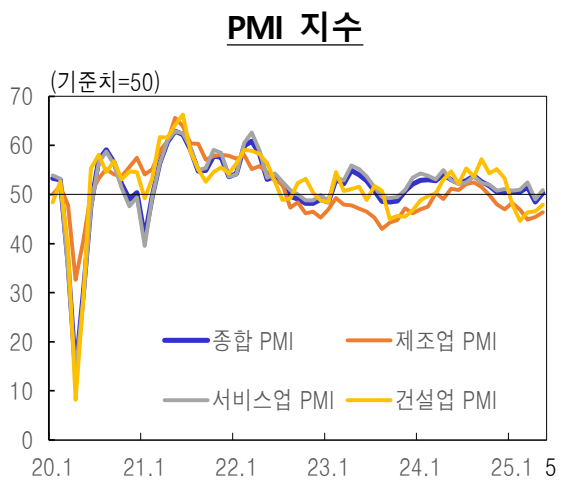
* 이 외에도 지방세,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세(Stamp Tax) 등 세부담도 확대

□ **종합 PMI 지수**(기준치 50)는 기업들의 경기 개선심리 악화로 **금년 상반기중 기준치 내외**에서 추이

○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국민보험료 기업부담분(NIC) 및 최저임금(NLW) 인상(25.4월 시행) 등이 **기업들의 심리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자료 : GFK, Bloomberg



자료 : Bloomberg

2 고 용

▶ 영국의 노동시장은 그간의 수요우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최근 유희여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 약화**에 따라 **임금 오름세도 둔화**되는 모습

□ 노동시장은 유희여력(slack)이 발생하며 공급우위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 영란은행은 그간 노동시장의 수요우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slack이 발생하는 조짐(tentative signs of slack emerging)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영란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5.5월))

○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수요 대비 실업자수(직전 3개월 평균, 25.4월: 2.2배)는 금년 상반기중 기업 구인건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 금년 3~5월중 기업들의 구인건수는 73.6만건으로 10년내 가장 낮은 수준(영국 통계청)

○ 실업률(직전 3개월 평균, 25.4월 4.6%)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4% 중반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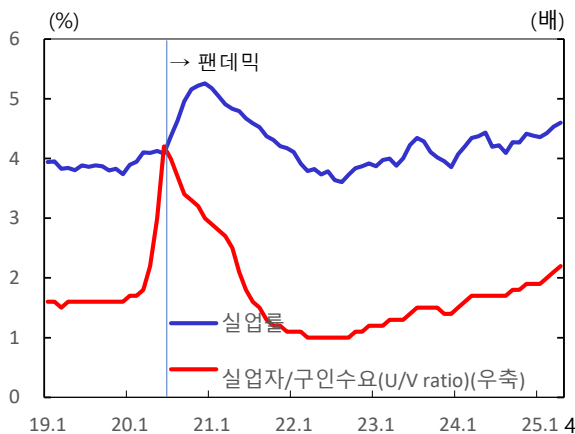
□ 주간임금(명목총임금) 상승률(직전 3개월 평균의 전년동월대비, 25.4월 5.3%)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금년 상반기중 오름세가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

○ 영란은행이 물가 지속성 판단 주요지표로 활용하는 민간부문 급여(보너스 제외) 증가율도 오름세가 둔화*

* 24.12월 6.2% → 25.1월 5.9% → 2월 5.9% → 3월 5.5% → 4월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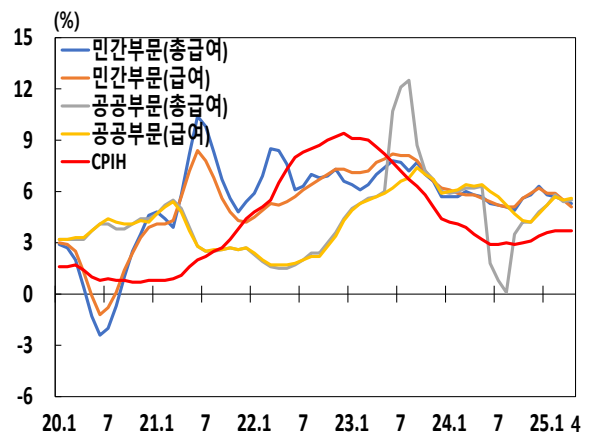
○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고용시장 약화, 국민보험료 기업부담분(NIC) 및 최저임금(NLW) 인상(25.4월 시행) 등 기업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여력 축소에 기인

실업률 및 고용시장 수요/공급 여건¹⁾



주 : 1) 16세 이상 인구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기준
자료 : ONS

부문별 명목 주간임금¹⁾ 상승률²⁾



주 : 1) 3개월 평균 2) 전년동월대비
자료 : ONS

3 물가

▶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4분기 들어 **오름세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며,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금년 2/4분기 들어 **오름세가 재차 확대**되며 **5월에는 3.4%**(전월대비 0.2%)를 기록*

* 24.12월 2.5% → 25.1월 3.0% → 2월 2.8% → 3월 2.6% → **4월 3.5%** → **5월 3.4%**

○ **4월 이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국민보험 기업부담분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상승효과**가 겹친 데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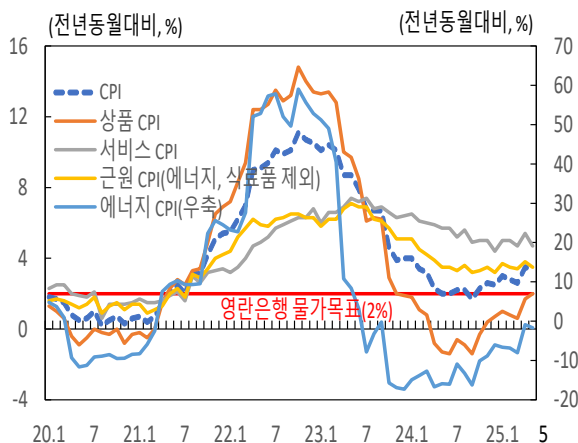
○ 영란은행이 물가의 지속성 관점에서 중시*하는 **서비스물가 상승률**도 금년 **5월 4.7%**로 더딘 **둔화세 지속****

* 영란은행은 서비스물가가 세계경제 요인에 덜 민감하고 국내 비용에 더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품물가보다 지속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24.12월 4.4% → 25.1월 5.0% → 2월 5.0% → 3월 4.7% → 4월 5.4% → 5월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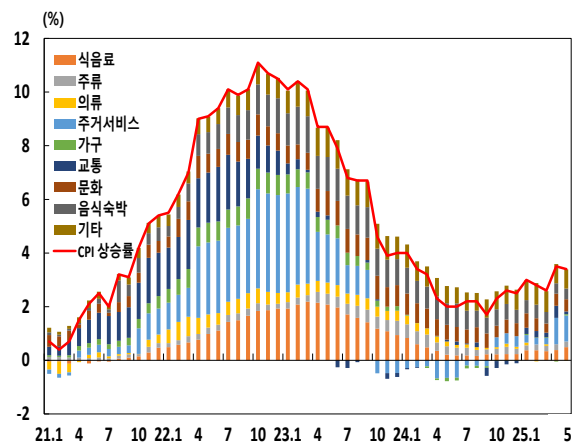
○ **근원물가**(core CPI, 에너지 및 식품가격 제외)는 금년 **5월 3.5%** 상승(전월대비 0.2%)

CPI 및 근원CPI



자료 : ONS

CPI 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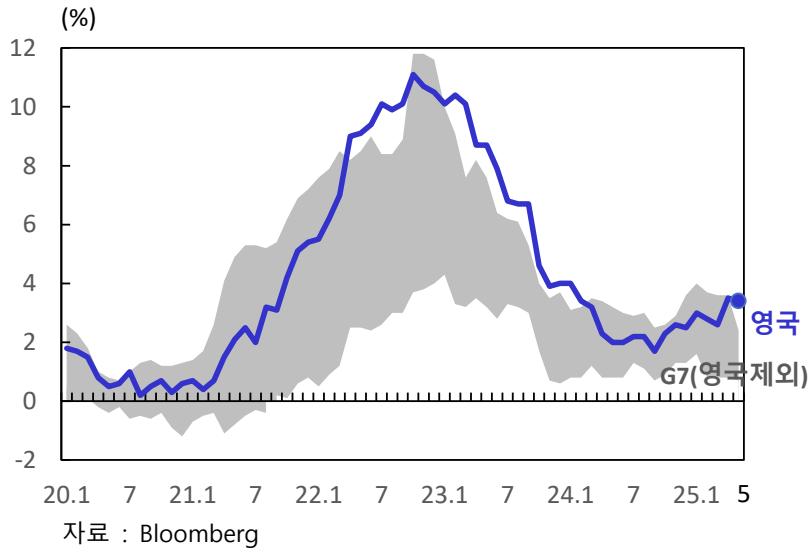
자료 : ONS

□ 한편 영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부분 2%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국을 크게 상회**

-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점이 높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높은 서비스업 비중***(영국 80%, 유로존 72%, 2023년 기준), **에너지 가격 상한제 운용***, **높은 주택 임대료 상승률** 등에 기인

* 보건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은 임금과의 상호작용으로 물가압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여타 업종에 비해 높고, 에너지가격 상한제(Energy Price Cap) 운용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둔화의 영향을 소비자에게 늦게 반영하기 때문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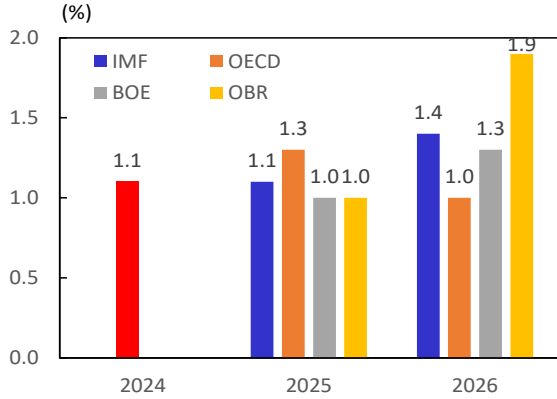
향후 전망

- ▶ **영국 경제는** 향후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기조,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 등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성장세** 지속 전망
- ▶ **노동시장은** 부진한 성장세로 유희 노동력(slack)이 확대되는 등 **공급우위 상황**이 지속될 전망
- ▶ **물가는** 경제 내 유희여력 증가, 파운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내년말경 물가목표 (2%) 수준에 근접할** 전망

1 성장

- **영국 경제는** 향후 대체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GDP 성장률은**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 영향이 지속되며 **금년 및 내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7년에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영란은행 전망)

GDP 성장률 전망¹⁾



주 : 1) 전년대비
 자료 : IMF(25.4월), OECD(25.6월), BOE(25.5월),
 예산책임청(OBR)(25.3월)

지출부문별 성장률 전망

	2024	2025	2026	2027
GDP	1.1	1.0	1.3	1.5
가계소비	0.8	1.3	1.8	1.8
기업투자	2.0	1.5	1.0	1.3
주택투자	0.8	0.0	5.0	6.0
수출	-1.3	0.5	0.0	2.0
수입	2.8	1.5	2.0	2.8

자료 : 영란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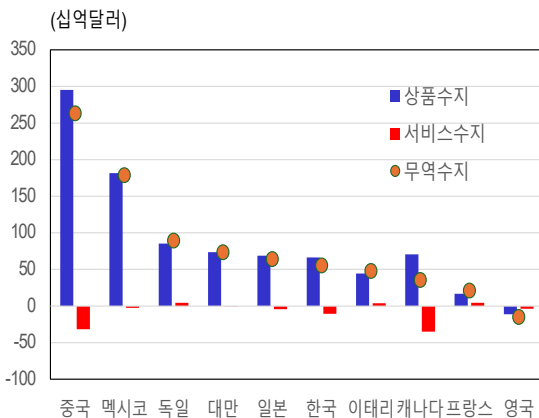
○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및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성장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

— 다만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관세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점, 최근 합의된 영·미 무역협정* 결과 등에 따라 여타 주요국에 비해 충격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

* 기본관세(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의 하향 조정(자동차 27.5%→10%)을 골자로 하고 있음. 참고로 영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규모는 90억 파운드(2024년 기준) 수출의 약 15%(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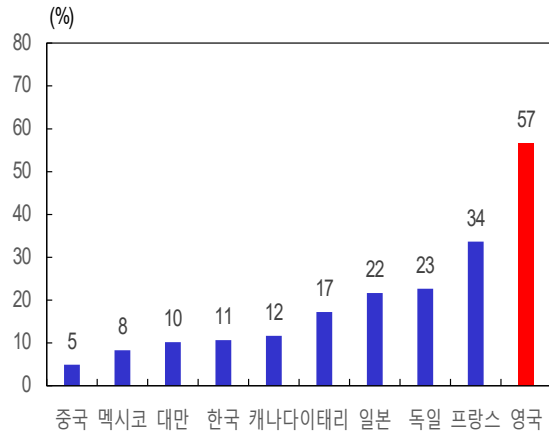
** 영란은행도 5.8일 발표한 통화정책결정문에서 글로벌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성장 전망이 악화되겠지만 영국의 경우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the negative impacts on UK growth and inflation are likely to be smaller.")

주요국별 대미 무역수지(2024년)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요국 대미 서비스수출 비중(2024년)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고 용

- **실업률은** 부진한 성장세가 유휴 노동력(slack) 증가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금년중 중기 NAIRU(4.5%, 영란은행 추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임금상승률**(민간부문 정기급여 기준)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인플레이션 수준 저하 등에 따라 지난해말 6% 초반에서 **금년말 3% 후반, 내년 말 2% 후반까지 크게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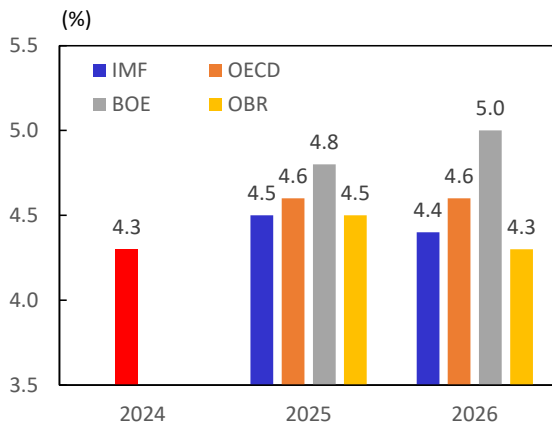
영란은행 임금상승률¹⁾ 전망

(기말기준, %)

1998~2007년 평균	2010~19년 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7
4.0	2.3	6.3	6.3	3.8	2.8	2.8

주 : 1) 민간부문 정기급여 기준
자료 : 영란은행 통화정책보고서(2025.5월)

실업률 전망



자료 : IMF(25.4월), OECD(25.6월), BOE(25.5월), 예산책임청(OBR)(25.3월)

영란은행 실업률 전망

(기말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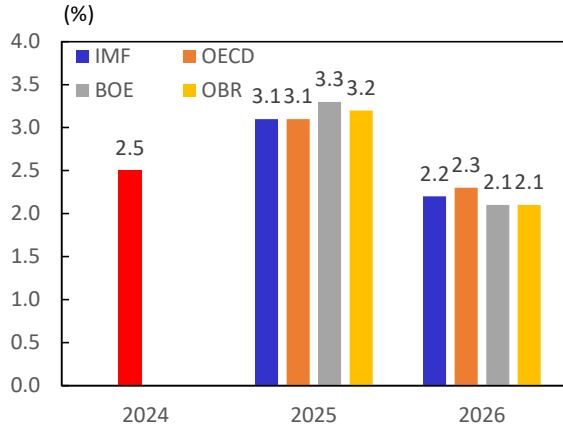
분기	실업률
25.2/4	4.6
4/4	4.7
26.2/4	4.8
4/4	5.0
27.2/4	5.0
4/4	5.0
28.2/4	4.9

자료 : 영란은행 통화정책보고서(2025.5월)

3 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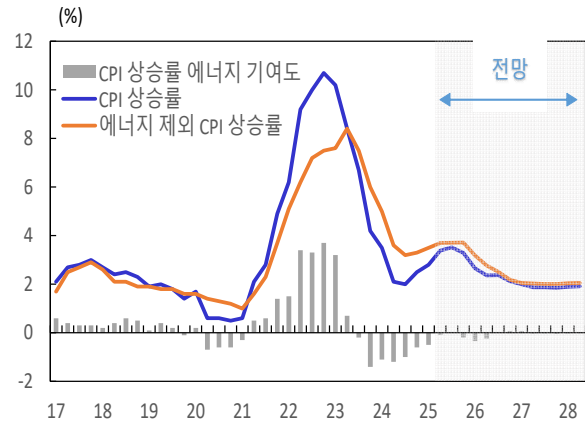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 유휴여력(slack)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파운드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전가효과 약화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지속**하며 대체로 **내년말경 물가목표 수준(2%)에 근접**할 전망
- 다만 **금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소멸,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어 **금년말 3%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주 : 1) 영란은행은 4/4분기 기준
 자료 : IMF(25.4월), OECD(25.6월), BOE(25.5월),
 예산책임청(OBR)(25.3월)

영란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 영란은행 통화정책보고서(2025.5월)

□ 한편 가계 및 기업의 단기 및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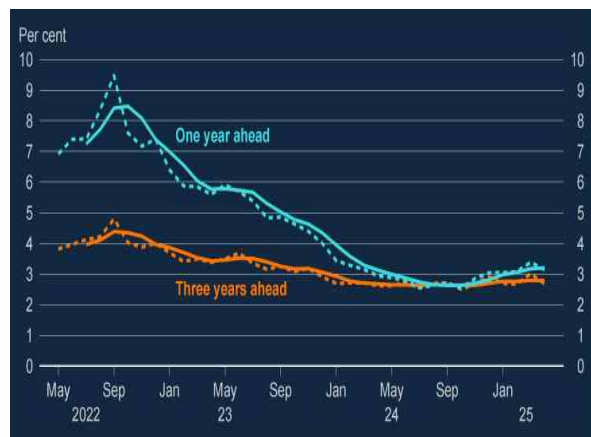
○ 에너지 등 규제 가격 인상 조치,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가계 기대인플레이션¹⁾



주 : 1) 점선은 2010~19년 평균
 2) 실선은 3개월 이동평균, 점선은 해당 월 수치
 자료 : Citi/YouGov, DMP Survey

기업 기대인플레이션²⁾



II. 금융 시장

1

최근 동향

1 금 리

□ 금년 상반기 중 영국 시장금리(국채 10년 기준)는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와 美 상호관세 정책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최근 4.5% 내외 수준으로 하향 안정

* 2025.1.14.일 기록한 영국 시장금리(국채 10년 기준) 4.89%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후에도 4.4%~4.8% 범위에서 등락

○ (1~3월) 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완화 계획(24.10월 발표) 이행에 따른 정부차입 증가 우려와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금리 변동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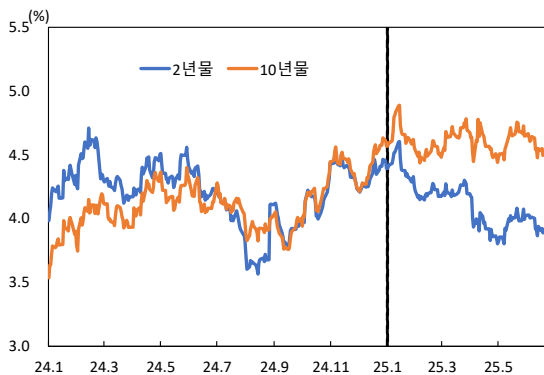
* 미국은 견조한 고용지표를 비롯한 양호한 경제지표,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경계심,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이 맞물리며 연초부터 금리가 상승

— 3월 춘계재정계획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발표됐으나,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

* 3.26일 영국 정부 춘계 재정계획(Spring Statement)에서 발표된 2025~26 예산연도 총 국채 발행 규모(2,990억 파운드)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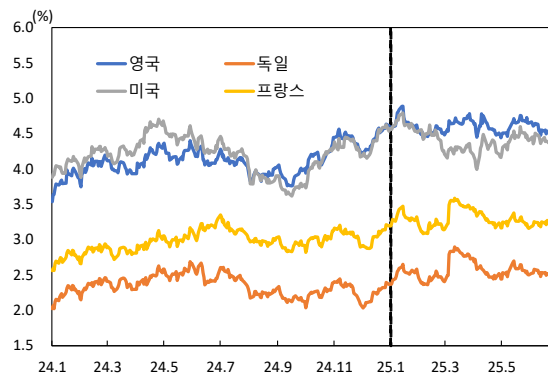
○ (4~6월) 4월초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급락한 금리는 미·중 상호관세 일시 유예(5.12일), 높은 물가상승률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하였다가, 최근 고용시장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

영국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



자료: Bloomberg

- 물가상승률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었다가 6월 발표된 임금상승률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완화 신호로 금리가 하향 안정

* 5월 중순에 발표한 영국 4월 물가상승률은 3.5%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5.4%를 보이며, 시장예상치(4.8%) 및 영란은행의 전망치(5.0%)를 크게 상회함

2 주 가

- 주가(FTSE100*)는 금년 상반기 중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기대,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상승세** 시현

*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위권내 기업 주가를 시가총액 기준 가중평균한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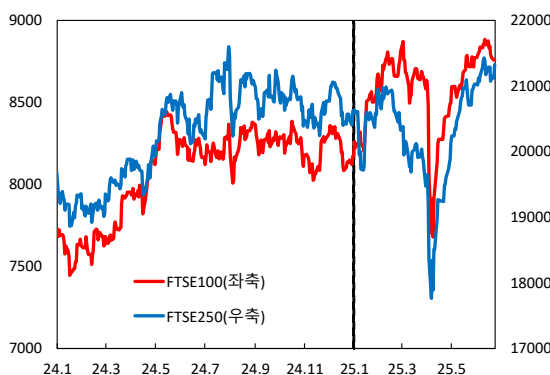
** 6.23일 현재 FTSE100 지수는 8,758을 기록하며 2024년말 대비 7.2% 상승하였으며, 상반기중 2024년 연간 상승률(5.7%)의 1.3배를 달성

- 4월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주가가 일시적으로 대폭 하락했으나, 이후 글로벌 무역긴장 완화, 주요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대 등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가는 재차 상승

- 특히 6.12일에는 FTSE1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8,884를 기록하는 등 방산·자원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유럽 지역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와 같은 정책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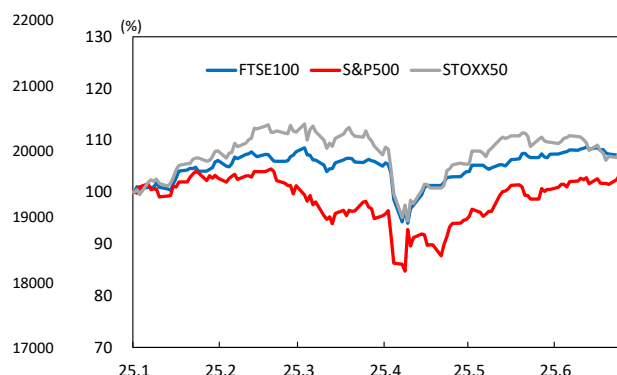
- 올해 들어 미국 예외주의 약화 속에 글로벌 자금이 주요국 증시로 분산되면서, FTSE100 지수는 6.20일 현재 배당을 포함한 총수익률이 약 9.6% S&P500(2.1%) 대비 큰 폭의 초과 수익을 시현

영국 주가지수



자료: Bloomberg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자료 : Bloomberg(24년말=100기준)

3 환율

- **파운드화 환율(USD/GBP)**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22.2월 이래 장중 최고 수준에 도달(6.24일, 1.3615)하며 전년말 이후 **상승세 지속***

* 24.12월말 1.2516 → 25.6.24일 1.3615 달러/파운드(+8.8%)

- 시장에서는 3월 이후 영·미 금리차 축소*로 파운드화의 상대적 투자매력도가 낮아졌음에도 **미국의 재정적자** 및 **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HSBC, ING, GS)

* 영국 - 미국(2년물 국채, bp): 25.3.7일 26 → 6.24일 5

- **유로화대비 환율(EUR/GBP)**은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 **달러화 대체통화 역할 부각** 등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4월초 연저점(4.11일, 1.1521) 도달하는 등 **약세*** 시현

* 24.12월말 1.2085 → 25.6.24일 1.1727 유로/파운드(-3.0%)

- **4월 중반** 이후 글로벌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환율이 일시 반등**하였으나 **6월**에는 **고용지표 약화** 등에 따른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으로 **약세 전환**

파운드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영·미 금리 격차¹⁾ 및 파운드화 환율



주 : 1) 영국-미국 국채금리(2년물)

자료 : Bloomberg

- ▶ **영국 금리(10년물 국채)**는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고용시장 내 과잉수요 완화**, **경기 모멘텀 둔화** 등으로 **4% 중반에서 초반대로 하락할** 전망
- ▶ **주가(FTSE100)**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무역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에 힘입어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 **환율(USD/GBP)**은 **탈달러화 흐름**, 무역관세 불확실성 일부 해소 등으로 **강세 압력**을 받겠지만, 영국의 재정긴축 및 **성장둔화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강보합세**를 전망

1 금 리

- **시장금리(국채 10년 기준)**는 하반기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기조 **지속**, **고용시장의 점진적 완화**, **성장 모멘텀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 4% 중반대 수준에서 4%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통화정책)**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현재 4.25%인 정책금리를 **하반기에도 분기마다 한 차례씩(25bp)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6.24일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가 9월 예정된 양적긴축(QT) 정책결정 시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매각 규모나 만기 구성 등 **QT 실행 방식의 변화**를 기대*

* 24.10~25.9월 중 시행될 1,000억 파운드 규모의 QT 중 약 870억 파운드는 만기상환에 따른 자연감소, 130억 파운드는 순매각으로 추정되며, 금년 10월부터는 만기 도래 규모가 연간 490억 파운드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매각 규모 축소, 만기 구성 조정 등 QT 운영방식의 조정이 예상(JPM, BNPP, MS 등)

- **(거시경제)** 하반기 영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임금상승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이 예상되며, 이는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영국은 하반기 1% 내외의 부진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은 연말까지 3%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유희여력(slack) 증가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외부여건)**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기물 국채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영국 국채금리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영국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국채 공급량 증가, 미국 및 독일 등 주요국들의 재정정책 방향과 국채 수급 부담* 등은 영국 국채금리 하락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은 감세안 관련한 재정적자 우려 지속으로, 독일은 인프라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으로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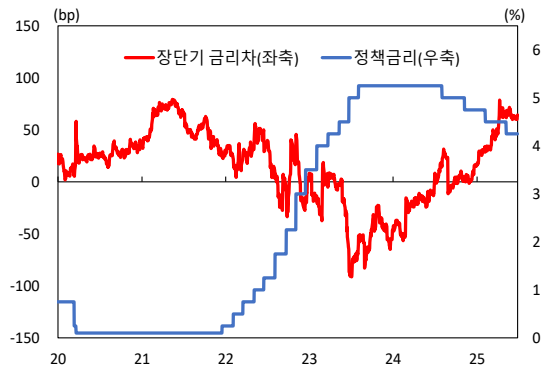
- 한편 수익률 곡선은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국채금리 전망치

	25.3Q	4Q
Natwest	4.75	4.60
GS	4.30	4.25
JPM	4.45	4.35
SG	4.50	4.50
BNP	4.50	4.40
중간값 ¹⁾	4.55	4.40

주: 1) Bloomberg, 주요기관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각 기관자료

장단기 금리차¹⁾ 및 정책금리 추이



주: 1) 10년물 - 2년물 영국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2 주 가

- 영국 주가(FTSE100)는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무역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주요기관들은 영국 주가지수(FTSE100)의 연말전망치를 9,000 내외로 예상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

- 영란은행은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및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안정적인 정치 환경도 긍정적 투자심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AJ Bell)

* 영국 정부는 연기금 자금을 통한 국내 성장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연기금(퇴직연금)

개혁안을 발표(5.29일)하였으며, 개혁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250억 파운드 이상을 운용하는 '메가펀드' 수 확대와 함께 연기금의 영국 내 투자 비중을 높여 총 500억 파운드 이상을 인프라주 택 등 성장 분야에 유도할 계획

- 또한 영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무역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에서, 향후 영국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은 영·인도 FTA(5.6일), 영·미 무역 협정(5.8일) 및 EU와 포괄적 협정(5.19일) 등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
- 주요국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배당수익률** 및 자사주 매입 지속 등이 **긍정적인 투자심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GS, AJ Bell)
 - FTSE100의 P/E는 6월 중순 현재 약 13배로, 미국(S&P500 25배), 유럽(Stoxx50 15배) 대비 낮은 수준이며, 선행 배당률은 6월 중순 현재 약 3.66%로 미국(S&P500 1.37%), 유럽(Stoxx50 3.46%) 대비 높은 수준
- 다만, 영국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경제 성장률**, 미국발 **무역갈등 재점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

주요 기관별 FTSE100 전망치

주요기관	25년말	주요기관	25년말
Capital economics	10,000	Citi	9,000
Jefferies	9,000	HSBC	9,300
JPM	9,000	GS	8,700

자료: 각 기관보고서

3 환 율

- **파운드화 환율**(USD/GBP)은 **관세 불확실성 일부 해소***, 탈달러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약세 지속** 등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재정긴축** 및 **낮은 성장세**가 이를 **제약**하면서 금년말 **강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HSBC, ING)

* 주요 투자은행들은 25년말 미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환율을 1.36(중간값 6.24일 기준) 수준으로 전망(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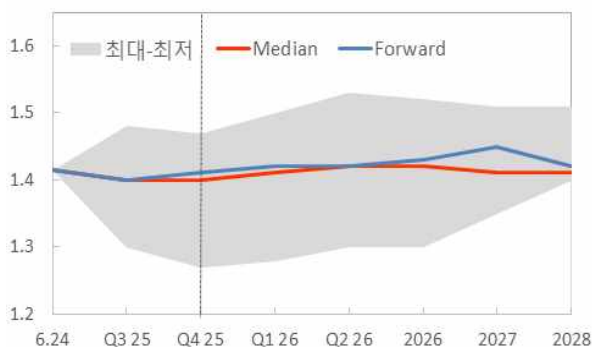
- 영국은 미국 및 인도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외 여건**이 **환율 강세 압력**으로 작용(BofA)
-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서베이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16%**(24년 대비 5%p 증가)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향후 1~2년간 **미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답변**(OMFIF)
- 다만, **영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운드화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약화되면서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영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파운드화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HSBC)

*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파운드화 환율은 198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음

- **유로화대비 환율**(EUR/GBP)은 영국의 재정지속성 우려에 따른 **재정긴축** 및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약세 예상**(GS, B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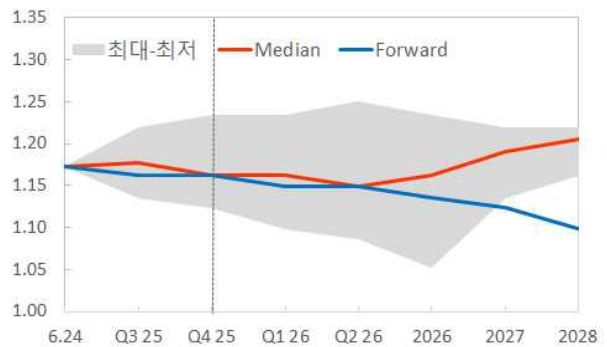
* 주요 투자은행들은 25년말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환율을 1.16(중간값, 6.24일 기준) 수준으로 전망(Bloomberg)

미 달러/파운드 환율 전망¹⁾



주 : 1)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 6.24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유로/파운드화 환율 전망¹⁾



주 : 1)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 6.24일 기준
자료 : Bloomberg